

“틀을 깨고 스스로의 스승이 되는 과정”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 '트리오' 연출 로와정 노윤희·정현석 부부

2018 광주비엔날레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현악기 소리가 들려온다. 바이올린과 첼로·비올라로 구성된 '현악 3중주'인데 뭔가 독특하다. 초등학교 남학생, 20대 여성, 30대 남성이라는 멤버 구성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들이 '연주'를 한다기 보다는 '음정'을 내는 데 급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접한 경험이 전혀 없는 세 사람이 비엔날레가 개막한 지난 9월 초 처음 악기를 잡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세 사람은 비엔날레 참여 작가 로와정의 작품 '트리오'의 퍼포머다. 로와정은 개막 전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악기를 처음 접한 사람, 실패와 성공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 통념과 다른 사람, 현대미술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이 조건이었다. 난생 처음 악기를 접하는 사람들이 2개월간 동안 조금씩 변화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작품이다.

공모 후 2팀을 꾸려 10주 동안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각 팀의 멤버는 전시장 한 곳에서 개별 연습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한 장소에서 만나 음을 맞춘다. 홀로 연습을 하고, 마지막 함께 연주하는 건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중심과 주변, 경계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로와정을 만났다. 2007년부터 함께 작업하고 있는 로와정은 노윤희·정현석 부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작품의 모티브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책 '무지한 스승'에서 얻었다.

"3년전부터 교육,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사회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의문도 들었구요. 돌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단단한 이데올로기 등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관념들이 바로 초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느꼈죠. 한데 지금 조카들도 비슷한 교육을 받더라고요. 너무 다른 세대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배움, 지식에 대한 틀을 깨고 최소한의 조건 아래,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의 스승이 되는 과정을 담고 싶었어요. 스스로 깨달은 지식과 자기 경험치를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친다'는 테마를 구현하는 거죠."

작가들은 악기와 곡 선정, 연습장소 위치 선정 등에만 관여하고 퍼포머의 활동에 일말 개입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두 달 동안 연습하는 곡은 바흐의 '스리 파트 인벤션'으로 전시장 '현장'에서만 연습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따로 가르쳐주는 음악 선생님은 없다. 혼자만의 방법으로 음정을

악기 배운적 없는 일반인 독학으로 연주하는 클래식 2개월간의 변화 과정 담아

초등생부터 중장년까지 광양·서울·부산서도 참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 되길"

찾고, 연주법을 익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초보자인 이들이 악기 연주법을 알아가는 과정은 각양각색이다.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책을 통해 독학하기도 한다.

참가자는 초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광주, 광양을 비롯해 멀리 부산과 서울에서 참여하는 열성파도 있다. 하루 세 차례 50분씩 5관과 2관 등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니 만만찮은 일이다. 토요일 팀인 최민정(25)씨는 비엔날레 직원이다. 모집 공고를 올린 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 연주 관련 프로그램이 깔린 아이패드를 보여 연습하던 그녀는 "내가 스스로 스승이 돼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간다는 데 관심이 갔다"며 "내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 있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실력이 느는 것 느껴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연소 참가자인 김성표(9·삼육초 3년)군은 아직도 퍼포먼스가 낯설고 힘들다. 김 군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같은 데서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렵다"며 "여기에 오면 진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할 거라고 했다. 김태군(37)씨는 아들 성표 군을 독려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악기를 다루본 적이 없어 너무 힘들다며 웃었다.

일요일 팀은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참여하는 김아현(20), 김희진(26)씨와 광양의 김미숙(55)씨로 구성돼 있다. 당초 '기록'의 의미로 현장을 촬영했던 로와정은 '과정'을 지켜보며 이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악기를 바꾸거나, 장소를 바꿔 프로젝트를 확대해볼 생각도 갖고 있다.

"참가자들이 각각 다른 스타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



로와정 노윤희·정현석 부부.



광주비엔날레 작품인 로와정의 퍼포먼스 '트리오'에 참여중인 김아현·김희진·김미숙씨.

씩 변화가는 모습도 흥미롭구요. 자기가 원하는 음을 찾았을 때 좋아하는 모습에 저희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꼭 완벽한 연주를 해야만 성공하는 것인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빨리, 편하게

빛고을 서구 축제 '나는 책이다'

19~20일 상록도서관

광주시 서구 상록도서관에서 제 4회 빛고을 서구 축제를 진행한다.

19일부터 20일까지 '나는 책이다'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생명과 평화를 느끼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책과 하나가 돼 이를 통해 지역 독서 증진 기회로 삼자는 의미도 포함됐다.

이명애·정승각 그림책 작가의 방, 박정섭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아트프린팅 원화전시, 어린이청소년 북셀러, 보이는 책라디오, 출판사의 우수도서 전시 및 마

더 많은 성취만을 좇는 사회에서 스스로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배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으면 좋겠구요."

주말에 문화전당을 방문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악기 연주에 '몰입'하고 있을 퍼포머들의 모습을 한번쯤 눈여겨 보시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곳엔 빛·그림자·소리뿐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 11월 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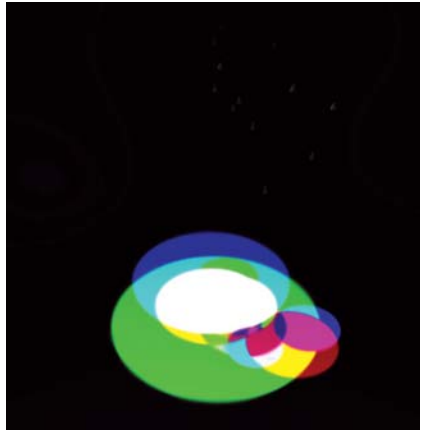
빛과 그림자, 소리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선보인다. 빛이 있으면 자연스레 그림자가 있는 법. 이 두 사이를 거니는 관객은 특유의 소리를 발산하게 되고 빛과 그림자, 소리는 이색적인 하모니를 이룬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창의공간 '미디어 338'의 하반기 공모 선정작 두 번째 전시 '완전한 생성기'를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윤혜린, 이정우 작가. 이들 작가는 빛과 그림자, 소리로 엮어진 독특한 미디어아트를 보여준다. 관람객이 지날 수밖에 없는 동선에 작품을 설치해 관객의 그림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제인 '완전한 생성기'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컴퓨터를, 다른 하나는 컴퓨터가 축적한 데이터 근원이 되는 인간을 상징한다.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 디지털아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작 'Mingle'은 색깔의 조합을 카메라로 재가공해 소리로 전환한 작품이다. 빛의 색 뿐만 아니라 관객의 그림자 역시 합성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관객은 컴퓨터 인식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관객 자체도 컴퓨터에 의해 소리가 변조되는 '변수'다. 주체와 변수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주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프로젝션 'The Contour'는 우연히 쌓인 선택지로 지형을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인간의 의지와는 별도로, 사실은 컴퓨터에 의해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문의 062-670-7492.



'Mingle'

'저승사자와 호랑이'가 찾아가요

극단 청춘, 20일부터 광주·전남 아동센터 등서 인형극

극단 청춘의 그림자 놀이 인형극 '저승사자와 호랑이' (사진)가 광주·전남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극단 청춘은 이달부터 두 달간 광주·전남의 10곳을 찾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펼친다. 앞서 5차례의 공연을 열고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주 용진육아원, 27일 오후 2시 광주일맥원, 11월10일 오전 10시 30분 화순자이원, 11월14일 오후 4시 비전지역아동센터, 11월28일 오후 3시 30분 브니엘지역아동센터에서 등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아동센터와 보육원 등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연으로 아이들의 자존감과 창의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승사자를 만난 착한 호랑이와 나쁜 호랑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관문에서 열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것만 골라 하는 호랑이는 지옥을 지나면서 반성을 하게 된다. 이윽고 착한 호랑이로 태어나 다시 저승사자를 만나 사람으로 환생하고 싶은 소원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동화를 빌려 '권선징악'의 교훈과 예로부터 내려온 사후 저승세계와 윤회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